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경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rend of the School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s

김 선 애

나사렛대학교 복지·아동학부 아동학전공

Kim, Sun-Ae

Dept. of Child Studies, Korea Nazarene Univ.

Abstract

This study aims at more exactly identifying current status and trend of the school violence in elementary schools. Many previous studies have addressed the issue with their own views and methodologies, and mostly ended up as one-time works without subsequent observation over years. From such respective studies, we could hardly figure out an integral and precise shape on the school violence in terms of fact and tendency. To my knowledge, this is the first time-lag design on the school violence which is conducted nation wide, where the same concepts and measures were applied to the population. The research conclusions are follows: (1) both offenders and victims of the school violence tend to increase, (2) compared to girls, boys have more experience of the school violence, and (3) both offenders and victims could be recruited from the same group.

Key words: School violence, offenders, victims, time-lag design

I. 서론

학교는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그 안에서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며 사회 속에 어울려 살아가는 연습을 하며 현재 있는 자리에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안과 주변에서 불량학생들이 주먹질을 주고받거나 싸움을 벌이는 일은 근래 들어 새롭게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학생들 간의 지나쳐 가는 몸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그 심각성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 갔다가 폭력을 당하여 인성이

파괴되고 생의 희망을 잃어가는 일을 지켜봐야만 했던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은 어디에서고 보상받을 수 없는 일이다. 폭력의 안전지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학교가 폭력에의 노출의 장으로 변질되어 자녀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크고 작은 학교폭력에 희생된 사례는 줄을 잇는다. 1995년 한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 여중생이 같은 또래 아이들 5명에게 무려 다섯 시간이나 구타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끝내 숨을 거둔 사건, 2002년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집단구타에 못 이겨 투신자살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피해는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흉포화 되고 있다(김선애, 1999; 김준호·김선애, 2000).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학교폭력 퇴치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폭력

Corresponding author : Sun-Ae Kim
Tel : 041) 570-7795
E-mail : sakim@kornu.ac.kr

이 존재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 학계의 관심은 그동안 행해진 연구논문의 양을 봐도 알 수 있다. 청소년개발원(2001)의 보고서에 의하면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가 154편이고, 여기에 각종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연구고서를 합하면 약 170여 편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와 상이함으로 인해 학교폭력은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 파악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이상균(1999)은 조사대상자의 58.9%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장명신(1998)은 13.6%만이 피해경험이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피해율이 지방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이거나 같은 지역에서도 피해율 편차는 매우 커 1999년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이상균(1999)은 58.9%로 보고하는 반면에 이병기(1999)의 연구는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각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폭력의 개념과 연구방법의 상이함에 기인한다.

학교폭력 개념의 상이함으로 인한 학교폭력 실태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용어는 4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 피해자, 가해자, 폭력 발생 장소와 관련된 제반사항, 폭력행위가 그것이다. 이 각각의 요소를 어떻게 규정하여 조작적 정의를 내리는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실태는 달라진다. 학교폭력의 첫 번째 구성요소인 피해자는 가장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을 정의할 때는 피해자의 신분이 학생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보다 광의의 접근을 한다면 교사도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교사를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포함하여 연구한 사례는 외국의 경우에는 찾아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구성요소인 가해자도 이와 유사하다. 가장 협의의 정의에 의하면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로 한정된다. 그러나 넓게는 학교 주변 불량배나 교사와 부모도 가해자로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로서의 교사의 체벌과 폭력간의 경계선이 불명확해지며 학교폭력의 범위의 확장을 가져온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부모

와 교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세 번째 구성요소인 폭력 발생 장소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폭력의 발생 장소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학교폭력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로 정의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만을 학교폭력이라 간주하고 광의로 정의할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의 폭력과 더 나아가 등하교 길 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폭력까지도 범위를 확대한다. 네 번째 요소는 폭력행위이다. 폭력행위는 협의의 정의인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신체적 상해를 주는 행위(Berkowitz, 1974)에서부터, 광의의 정의인 도구적 공격과 적대적 공격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윤진, 1996). 협의의 정의로 학교폭력을 규정한다면 구타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만이 포함될 수 있으며, 광의의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금품갈취나 괴롭힘, 협박 등으로 인한 심리적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상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폭력 실태의 차이이다. 조사 지역에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율의 편차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 지역의 조사는 학교폭력 피해율이 약 47%로 나타나고, 광주와 전남 지역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30% 선에 머문다(청소년개발원, 2001). 또한 지역으로 인한 편차 뿐 아니라 모집단의 범위와 표본추출 방법에 의해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을 포괄하는 조사의 결과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차이를 보이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인문계만을 선정하였는지, 실업계와 야간 고등학교를 포함시켰는지에 여부에 의해서도 학교폭력 피해율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의 실태는 중학교 남학생의 피해율이 가장 높다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일반화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효율적인 대책의 수립이 어려운 건 자명한 일이다.

기존의 연구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시행된 연구보고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의 하

나이나 연구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금품갈취와 폭행, 협박의 유형으로만 한정하여 정의하였기 때문에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상담 자료에서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의 형태로 보고 되고 있는 괴롭힘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조사가 일회성으로 한정되어 경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해자는 학생으로 한정하고, 가해자는 학생과 학교주변 불량배를 포함시키고 부모와 교사는 제외하였다. 폭력발생 장소와 관련된 제반사항에서는 기존의 연구(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치안연구소,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1997)가 학교폭력을 광의로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학교 안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시켰으나 학교와 근접한 지역으로 범위를 축소시켰다. 폭력행위의 경우에도 광의의 정의를 받아들여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행위의 범위를 확장시켜 협박과 괴롭힘과 같은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을 학교폭력의 세부유형으로 보았다. 여기에 덧붙여 인터넷 이용도의 증가에 따라(정보통신위원회, 200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1;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 및 휴대폰과 관련된 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분류하여 그 피해와 가해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동안 연구에서 등한시되어 오던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초등학생으로 삼았으며, 지역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폭력 피해율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전국규모의 조사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본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은 학교폭력의 피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피해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이러한 피해자 중심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해는 물론이고 가해 실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더 나아가 기존의 일회성 조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시간 지연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같은 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실시한 것으로 모집단이 동일한 일종의 패널조사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설계를 통한 조사는 우리나라 학교폭력 조사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조사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학교폭력의 현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간에 따른 추세 파악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의 정확한 실태와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학교폭력 피해 당시 상황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학교폭력 가해 실태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의 분포율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표집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주변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주변 폭력이 더 이상 청소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피해연령의 저 연령화가 이루어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피해가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 4,5,6학년들 사이의 학교주변 폭력 실태를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서울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학교주변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단위의 조사를 하였다. 또한 보다 명확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2001년도와 2002년도 2회에 걸쳐 연령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연구시기를 다르게 하고 연구대

상을 달리한 시간 지연(Time lag) 연구를 실시하였다. 2회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조사이며 모집단도 동일한 패널조사이다. 2001년도에 실시한 조사에는 초등학교 4,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1,303명이, 2002년도에 실시한 조사에는 1,429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002년 현재,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학교의 소재 비율은 서울 11.8%, 부산 5.5%, 대구와 인천 각각 3.7%, 광주와 대전 각각 2.4%, 울산 1.7%, 경기 16.0%, 강원 6.3%, 충북 4.3%, 충남 7.1%, 전북 7.3%, 전남 8.4%, 경북 9.5%, 경남 8.5%, 제주 1.7%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전국적인 학교의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학교 소재 비율이 높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두 개교를, 그 외 지역에서 한 개교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선정된 표본은 다음 <표1>과 같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실태 파악을 위해 피해자를 초등학생으로 국한하고 가해자의 범주도 성인범죄자나 교사와 부모의 폭력은 제외하

였다. 범죄피해조사는 대체로 폭력범죄와 절도, 사기, 소매치기와 같은 재산범죄, 교통상해 등 기타 형법위반 범죄를 모두 포괄하지만(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학교 안이나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이 주로 입을 수 있는 폭력 피해 유형으로 한정하였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금품갈취, 폭행, 협박 등의 폭력범죄가 포함되었으며(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한국청소년개발원, 199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집단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고양된 뒤로 괴롭힘이 학교폭력의 세부유형으로 주목받으며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김길임·심희옥, 2002; 김준호·김선애, 2000; 신재선·정문자, 2002; 최미경·도현심, 2000; 치안연구소,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황성숙,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품갈취, 협박, 구타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과 언어적이며 심리적인 폭력인 괴롭힘을 학교폭력의 세부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여기에 덧붙여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학교폭력 피해척도를 구성하였다.

물리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은 각각 다섯 개의 하위 문항으로 질

표1. 설문조사 대상 학교와 응답자 분포

단위 : 명

지역	학교	2001년도	2002년도
서울	성산초	114	120
	한양초	114	134
부산	동성초	102	114
광주	미산초	117	137
경기	효정초	117	42
	신안초	117	127
강원	토성초	64	53
충남	병천초	98	215
전북	용성초	117	132
경북	대흥초	115	114
경남	삼계초	116	127
제주	노형초		114
합계		1303	1429

문하여 피해와 가해의 경험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구체적인 표현을 써서 유형별 학교 폭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물리적·신체적 폭력 중 협박과 구타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폭력과 심각한 형태의 폭력 모두를 포함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각 유형별 문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각각의 항목은 '이번 학년 동안(올해 3월부터 지

금까지) 학교 안과 근처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게 하여 피해를 측정하였으며, '이번 학년 동안(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학교 안과 근처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다른 학생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가해를 측정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 상황을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가해자의 신분과 수,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표 2. 학교폭력 유형과 세부항목

세 부 유형	구 분	문 항	비 고
물리적·신체적 폭력 (협박의 폭력)	금품갈취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다	
	협박	-무서운 말투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을 당했다	가벼운 형태
		-흉기의 위협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을 당했다	심각한 형태
구타	-주먹이나 발로 심하게 맞았다 -흉기로 맞거나, 담뱃불로 지짐을 당했다	가벼운 형태 심각한 형태	
괴롭힘	강제 심부름	-매점 가기 등의 심부름을 억지로 했다 -위협에 못 이겨 숙제를 강제로 해주었다 -시험 볼 때, 위협에 못 이겨 답안지를 억지로 보여주었다	
	놀림	-성격이나 성격, 집 형편, 신체적 특징 때문에 심한 놀림을 당했다	
	따돌림	-고의적인 따돌림(묻는 말 무시, 놀거나 점심 먹는데 끼워주지 않기 등)을 오랫동안(한 달 이상) 당했다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아이디 도용 피해	-누군가 나의 아이디를 훔쳐서 이용하는 바람에 큰 곤란을 겪었다	
	인터넷 게시판 폭력	-인터넷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듣거나 모욕을 당했다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피해	-리니지, 디아블로 등의 게임 아이템을 포함해 인터넷과 관련하여 금전적 손입수를 당했다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피해	-리니지, 디아블로 등의 게임 아이템을 포함해 인터넷과 관련하여 협박이나 폭행을 당했다	
	휴대폰 폭력피해	-휴대폰 음성,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욕설이나 모욕의 말을 들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항목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조사는 2001년도와 2002년도 말에 각각 한 차례씩 실시하였고, 학교폭력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학교폭력 피해율과 추세

물리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으로 세분화 하여 조사한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학교폭력 피해실태는 다음과 같다.

1) 물리적·신체적 폭력 피해

물리적·신체적 폭력은 금품갈취와 협박, 구타 등을 포함한다. 다음 <표3>은 2001학년도와 2002학년도에 각각 일년 동안 경험한 폭력 피해율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금품갈취, 협박, 구타 피해율 추세를 보면,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의 피해율이 증가하였다(금품갈취 : 9.5%→11.0%, 협박 : 11.7%→14.8%, 구타 : 11.9%→17.4%).

세부유형별 피해를 비교하면 구타, 협박, 금품갈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2001년

도와 2002년도 모두 동일하다.

물리적·신체적 폭력 피해는 금품갈취, 협박, 구타 세 유형에서 모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약 2-3배 정도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율은 선행연구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학교폭력 피해율 조사 결과를 보면, 금품피해는 응답자의 약 28%, 협박은 약 20%, 구타는 약 35%의 피해율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결과와 2002년도의 학교폭력 피해율만을 놓고 비교를 해 봐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교폭력 피해율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불일치의 원인은 조사대상자의 상이함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이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이다. 그간 행해진 연구 간의 학교폭력 피해율의 편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 매우 크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율을 높게 보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학교폭력 중 물리적·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피해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인 저 연령층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다 학교폭력 피해율의 차이가 발생된 보다 큰 원인은 학교폭력 개념의 상이함으로 인한 측정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안이나 학교 근처에서 발생한 학생에 의한 폭력에 중점을 두어 문항을 구성하였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의 조사에서는 예를 들면 '지난 일 년 동안

표 3. 물리적·신체적 폭력

%

	금품 갈취		협박		구타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남학생	13.8	15.5	14.9	19.8	15.8	25.2
여학생	5.1	6.0	8.5	9.3	8.0	8.9
합계	9.5	11.0	11.7	14.8	11.9	17.4

표 4. 괴롭힘 피해

%

	강제심부름		놀림		따돌림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남학생	12.7	15.5	12.1	15.4	3.5	6.7
여학생	10.2	11.7	12.1	13.1	5.8	5.0
합계	11.4	11.7	12.1	14.0	4.7	5.9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율을 산출하였다. 여기에는 폭력 발생 장소가 보다 넓게 포함되며 가해자도 일반 성인, 부모, 교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실제로 한 예로 구타의 경우에 가해자의 분류를 보면 교사와 부모를 포함하고 있다. 이런 측정방식의 차이는 학교폭력 피해율을 기계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 동일한 연구기관에서 행해진 연구결과에서도 이런 차이는 발견된다. 폭행피해의 경우 1990에 실시된 연구에서는 여자 중학생의 경우 4.2%가 피해를 보고한 반면, 1996년 보고는 26.4%로 나타났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1996). 조사대상자가 본 연구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던 연구(치안연구소, 1996)에서도 학교폭력피해율의 편차를 발견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구타 피해율이 남학생 39.7%, 여학생 12.8%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의 2002년도 금품 갈취 피해율을 보면 남학생 15.5%, 여학생 6.0%이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 경우에도 본 연구에서는 피해 발생 장소를 학교 안과 근처로 제한하였고,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주택가 골목길,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등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킨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와의 차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정확한 학교폭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념과 동일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반복 시행되는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괴롭힘 피해

괴롭힘은 매점 심부름을 하거나 숙제를 대신해주는 강제 심부름과 놀림과 따돌림으로 세분화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괴롭힘 피해

경험율은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다소 증가하였다. 강제심부름과 놀림은 피해율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따돌림의 피해율은 두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 가지 세부유형 중 강제심부름은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보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괴롭힘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2002년 : 남학생 15.5%, 여학생 11.7%).

3)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피해

사이버 폭력은 아이디 도용 피해, 인터넷 게시판 폭력,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 피해,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 피해, 휴대폰 폭력 피해로 세분화 하여 피해율을 조사하였다.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은 인터넷 게시판 폭력을 제외한 4개의 세부유형에서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 피해율이 증가하였다. 인터넷 게시판 폭력은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피해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개의 세부유형 중 피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아이디 도용 피해 유형으로 2001년도에는 응답자의 20.0%가, 2002년도에는 24.4%가 누군가가 본인의 아이디를 훔쳐서 이용하는 바람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피해나 휴대폰 폭력피해는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율을 보였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연령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피해는 인터넷과 관련해서 협박이나 폭행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직 이러한 직접적인 신체적 유형의 피해는 초등학생에게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휴대폰은 초등학생 사이에 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세부유형에서 남녀의 피해율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은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피해와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피해 유형이다. 이 두 유형에서는 <표5>에

표 5.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피해

%

	아이디 도용 피해		인터넷 게시판 폭력		인터넷 게임 관련 사기 피해		인터넷 게임 관련 폭행피해		휴대폰 폭력 피해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남학생	22.3	27.6	7.5	8.2	12.7	17.6	5.5	5.7	2.0	3.5
여학생	17.7	20.8	8.8	7.4	4.4	5.3	1.7	2.3	3.1	4.8
합계	20.2	24.4	8.2	7.8	8.5	11.7	3.6	4.1	2.6	4.1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의 피해율보다 약 3배가량 높다. 이는 인터넷 게임과의 접근이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2. 학교폭력 피해 당시 상황

학교폭력 피해 당시 상황은 가해자의 신분과 수,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가해자 신분과 수

① 물리적·신체적 폭력

물리적이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같은 학교 같은 학년 1명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하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볼 때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 1명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라고 응답한 율은 남학생의 경우 전체 가해자의 신분 중 2001년과 2002년 모두 두 번째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도 2001년도에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표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물리적·신체적 폭력에 의한 피해는 졸업생과 중퇴생을 포함하여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가 전체 폭력 피해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표 6. 물리적·신체적 폭력 가해자의 신분과 가해자 수

%

		물리적·신체적 폭력			
		남학생		여학생	
		2001	2002	2001	2002
같은 학교	같은 학년 1명	25.9	34.9	42.4	43.0
	같은 학년 여러 명	14.6	11.3	8.2	17.0
	선배 1명	9.5	10.1	4.7	6.0
	선배 여러 명	12.7	11.8	14.1	4.0
	졸업생	7.0	4.2	3.5	9.0
	중퇴생	1.9	1.3	1.2	0
	소계	71.6	73.6	74.1	79.0
다른 학교 학생	3.8	4.6	7.1	5.0	
모르는 사람	21.5	14.3	14.1	9.0	
기 타	3.1	7.5	4.7	7.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표 7. 괴롭힘 가해자 수

	괴롭힘			
	남학생		여학생	
	2001	2002	2001	2002
1명	31.0	33.9	26.1	32.2
2-3명	31.7	42.1	47.8	35.7
4-5명	16.7	12.0	7.8	14.8
6명 이상	20.6	12.0	18.3	17.4
합계	100.0	100.0	100.0	100.0

② 괴롭힘

강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놀리고 따돌리는 괴롭힘 유형의 학교 폭력의 가해자는 2001년도와 2002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2-3명, 1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4-5 명인 경우보다는 오히려 6명 이상인 집단적인 경우가 2002년도의 남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02년도 남학생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4-5명인 경우와 6인 이상인 경우의 비율이 같게 나타났다).

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아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가해자인 경우가 약 23% 정도로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2) 피해를 알린 대상

학교폭력을 경험한 후 그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알렸는지의 여부와, 알렸다면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질문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물리적·신체적 폭력인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가 알린 비율이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물리적·신체적 폭력은 그 피해 정도가 가시화되기 쉽다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물리적·신체적 폭력 경우에는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모두 남학생은 가족(부모, 형제 등)에게 피해 사실을 가장 많이

③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은 2001년도와 2002년도 모두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모르는 사람이 가해자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60% 이상이 된다. 이는 사이버 상의 특성을 반

표 8.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가해자 신분

		사이버 폭력 (및 휴대폰 폭력)			
		남학생		여학생	
		2001	2002	2001	2002
같은 학교	같은 학년	22.9	21.2	26.6	24.4
	선배	2.8	3.4	4.2	3.1
	졸업생	1.7	4.7	1.4	0
	중퇴생	0	0.9	0	0.6
	소계	27.4	30.2	32.2	28.1
다른 학교 학생		3.4	2.6	1.4	5.0
모르는 사람		65.4	63.8	62.4	64.4
기 타		3.8	3.4	4.0	2.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표 9.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

%

	물리적·신체적 폭력				괴롭힘				사이버 폭력 (및 휴대폰 폭력)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가족 (부모, 형제 등)	41.4	39.3	31.7	31.0	37.1	41.2	38.4	41.1	21.9	24.3	22.9	30.0
친구	24.4	22.7	29.3	34.0	13.7	18.1	22.3	25.0	32.0	46.0	35.0	41.9
교사	5.1	7.0	14.6	5.0	5.6	6.0	5.4	6.3	4.5	2.2	2.1	1.3
신고전화 (경찰, 검찰 등)	1.3	0.4	1.2	1.0	0.8	1.1	0	0	3.9	4.9	2.9	8.8
청소년상담센터 등 상 담기관	0	0	0	0	0	0	0	0	0	0.4	0.7	0
기타	2.5	3.1	1.2	2.0	1.6	1.1	0	0	2.2	0.4	2.1	3.8
알리지 않음	25.5	27.5	22.0	27.0	41.5	32.4	33.9	27.7	35.4	21.7	34.4	14.4
합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알린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알리지 않음, 친구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린 대상이 가족(부모, 형제 등)과 친구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알리지 않음은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괴롭힘의 경우는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거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가 2001년도와 2002년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부모 또는 알리지 않음보다 적은 세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은 괴롭힘의 경우와는 반대로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알린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부모, 형제 등)에게 알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3)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

학교폭력을 경험하고서도 왜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10>을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학교폭력의 세부유형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

다. 물리적·신체적 폭력 유형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약 30%에서 4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이 커질 것 같아서'를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보고하였고, 다음으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서'를 꼽고 있다(2002년도 여학생의 경우 제외).

괴롭힘과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경우는 이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물리적·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일이 커질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괴롭힘과 사이버 폭력 피해는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 굳이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율이 34-44% 정도로 첫째 이유로 꼽히고 있다(2002년도 여학생의 경우 제외).

두 번째 이유는 괴롭힘과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괴롭힘 경우에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라든지 창피해서나 보복 당할 것 같아서 라는 응답이 나타났지만,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경우에는 이야기해도 소용없어서 라고 응답한율이 거의 일관되게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이버

표 10. 피해를 알리지 않은 이유

%

	물리적·신체적 폭력				괴롭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5.0	4.8	0	3.7	6.0	15.3	2.6	17.5	3.4	2.1	2.2	20.8
야단맞을 것 같아서	7.5	3.2	0	3.7	6.0	10.2	2.6	2.5	5.1	0	0	0
이야기 해도 소용없어서	15.0	9.7	5.9	14.8	10.0	10.2	18.4	17.5	18.6	27.1	15.6	16.7
일이 커질 것 같아서	30.0	33.9	41.2	33.3	20.0	13.6	26.3	20.0	13.6	12.5	13.3	12.5
대단한 일이 아니어서	25.0	22.6	29.4	14.8	36.0	32.2	34.2	15.0	44.1	37.5	42.2	41.7
보복 당할 것 같아서	7.5	12.9	11.8	11.1	12.0	8.5	7.9	20.0	1.7	6.3	4.4	0
기타	10.0	12.9	11.8	18.5	10.0	10.2	7.9	7.5	13.6	14.6	22.8	8.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경우에는 앞선 <표8>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가해자 신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62%를 상회하고 있어, 피해 사실을 알려봤자 피해 정도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3. 학교폭력의 가해 실태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이해를 학교폭력 가해 실태를 함께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위의 <표11>은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발생한

표 11. 학교폭력 세부유형별 가해율

%

	물리적·신체적 폭력		괴롭힘		사이버 폭력 (및 휴대폰 폭력)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남학생	10.7	15.4	13.7	14.3	12.1	19.5
여학생	5.1	5.2	11.7	10.3	12.1	11.9
합계	7.9	10.5	12.7	12.4	12.1	15.9

학교폭력 가해율을 세부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것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2001년도보다 2002년도의 가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율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세 가지 학교폭력 세부유형 중 상대적 가해율은 2001년도에 괴롭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물리적·신체적 폭력 순으로 나타났고, 2002년도는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괴롭힘, 물리적·신체적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에 들어와서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가해율이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면, 괴롭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경우에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가해율이 2001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다가 2002년에는 남학생의 가해율이 조금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성별에 따라 가해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학교폭력은 물리적·신체적 폭력이다. 물리적·신체적 폭력의 경우 2001년에는 남학생의 가해율이 10.7%였고 여학생은 5.1%에 해당하여 남학생의 가해율의 여학생 보다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격차는 2002년도에 더욱 심해져, 남학생 15.4%, 여학생 5.2%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3배 정도 물리적·신체적 폭력 가해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4.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모두 경험한 집단 실태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는 소수의 가해자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해자 중심 범죄학과 더불어 범죄학의 중요한 분과인 피해자학에서는 이런 통념을 뒤엎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동일집단 이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많은 경우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을 확률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상호작용 이론에서도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일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가 발생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의 명확한 구별이 어

려운 경우가 많으며,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피해만 당하던 학생이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비슷한 성향의 학생들끼리 어울리다가 싸움이 일어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집단 이론과 상호작용 이론의 관점을 받아들여 가해와 피해는 동시에 나타난다는 가정을 세우고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자를 가해와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네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가해와 피해의 경험이 모두 없는 학생을 하나로 묶어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집단은 가해는 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만 입은 학생, 세 번째 집단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경험을 갖고 있으며 피해는 당한 적이 없는 학생, 네 번째 집단은 가해 경력도 있고 피해도 입은 적이 있는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가해 무·피해 무 집단으로서 '가해·피해 경험 없음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두 번째 집단은 가해 무·피해 유 집단으로 '피해 집단', 세 번째 집단은 가해 유·피해 무 집단으로 '가해 집단', 네 번째 집단은 가해 유·피해 유 집단으로 '가해·피해 모두 경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집단인 피해 집단은 가해경험은 전혀 없고 피해만을 입은 순수 피해 집단이며, 세 번째 집단인 가해 집단은 피해는 경험한 적이 없고 가해만을 한 순수 가해 집단을 의미한다. 네 번째 집단인 가해·피해 모두 경험 집단이 가해를 하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는 집단이다.

먼저 <표12>는 학교폭력을 세부유형별로 나누어 가해와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네 집단으로 분류한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세부유형 중 물리적·신체적 폭력은 금품갈취와 협박을 동반한 구타를 세분화하여 그 비율을 살펴보았다.

물리적·신체적 폭력 중 금품갈취는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거나, 빼앗았다는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며, 협박을 동반한 구타는 무서운 말투로 협박, 흉기의 위협과 함께 협박, 주먹이나 발로 심하게 때림, 흉기로 때림과 같은 항목에 가해와 피해 여부를 응답한 것이다.

금품갈취와 협박+구타, 괴롭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세부유형 중 가해와 피해가 모두

표 12. 학교폭력의 세부유형별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분류한 집단 분포율

%

	물리적·신체적 폭력 중 금품갈취				물리적·신체적 폭력 중 협박+구타				괴롭힘				사이버 폭력 (및 휴대폰 폭력)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2001	2002
가해·피해 경험 없음 집단	85.7	82.9	94.5	93.5	74.3	64.4	84.6	83.3	71.4	65.8	74.6	76.9	65.7	53.6	70.7	67.1
피해 집단	12.4	12.8	4.4	5.6	15.6	21.1	9.2	11.7	15.2	19.6	14.0	13.0	22.3	27.1	17.3	21.1
가해 집단	0.6	1.5	0.3	0.5	3.6	3.9	1.9	2.6	6.9	5.4	5.6	4.8	4.1	7.4	4.7	5.0
가해·피해 모두 경험 집단	1.3	2.8	0.8	0.5	6.5	10.5	2.5	2.4	6.4	9.3	5.8	5.2	7.8	12.0	7.2	6.7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폭력은 물리적·신체적 폭력(금품갈취 및 협박+구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 폭력이 가해도 없고 피해도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비율은 물리적·신체적 폭력 중 금품갈취의 경우는 비교적 낮아 0.5%에서 2.7%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물리적·신체적 폭력 중 협박을 동반한 구타나 괴롭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경우는 가해도 하고 피해도 입은 초등학생이 응답자의 2.4%에서 10.5%로 분포되었다. 이 중 2.4%를 기록한 집단은 물리적·신체적 폭력 중 협박을 동반한 구타에서의 여학생 집단으로서 가해를 하는 사람은 가해만을, 피해를 입는 사람은 피해만을 입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물리적·신체적 폭력 중 협박을 동반한 구타와 괴롭힘의 경우에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가해·피해 집단에 더 많이 속해 있는 걸 알 수 있다.

다음의 표는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위의 <표13>은 금품갈취, 협박을 동반한 구타, 괴롭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가해와 피해의 교차율이다. 각기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폭력 중 한 가지라도 경험을 하였거나 가해를 한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년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

표 13. 전체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분류한 집단 분포율

%

	남학생		여학생	
	2001	2002	2001	2002
가해·피해 없음 집단	45.5	33.4	54.2	51.8
피해 집단	31.0	32.8	26.3	28.5
가해 집단	6.4	7.1	5.5	5.4
가해·피해 모두 경험 집단	17.2	26.6	14.0	14.3

생의 경우 2001년도에는 45.5%가 가해도 피해도 경험하지 않았으나 2002년도에는 33.4%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이 비율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2001년도에 가해나 피해 중 적어도 하나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율이 55%에 달하고 2002년도에는 66%에 육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의 노출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해 집단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2002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이 크지 않으며, 가해 집단은 남학생의 경우 조금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거의 같은 비율을 유지하였다.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은 남학생의 경우는 2001년도에 17.2%, 2002년도에는 26.6%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남학생의 경우는 학교폭력 피해 실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전반적인 피해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비율도 전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여학생의 경우는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이 응답자의 14% 정도로 2001년도와 2002년도에 걸쳐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동일한 학생들이 그 폭력의 피해를 입기도 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6년도에 실시된 선행연구(김준호·김선애, 2000)에서도 남학생 22.2%, 여학생 8.0%가 피해와 가해를 모두 경험한 집단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집단 내에 존재한다는 이론은 실증적 경험 조사로 뒷받침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의 현 실태와 추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해졌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이 문제를 독자적인 관점과 연구방법을 통해 다뤘었고, 대부분은 여러 해에 걸친 후속 연구 없이 일회성 작업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런 개별적인 연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의 현실과 추세에서 전체적이고 면밀한 실체를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학교 폭력에 관한 전국 단위로 행해진 첫 번째 시간 지연 연구로서, 모집단에 대해 학교폭력에 대한 동일한 개념과 척도를 사용하여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 실태, 2001년과 2002년에 걸친 학교폭력 상황과 추세, 또한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피해율은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물리적·신체적 폭력, 괴롭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중 상대적으로 괴롭힘 피해율은 변화의 폭이 작았으며, 물리적·신체적 폭력 중 구타 피해와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 중 아이디 도용 피해와 휴대폰 폭력 피해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둘째, 학교폭력의 피해율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 협박, 구타를 포함하는 물리적·신체적 폭력 피해는 남학생이 여학생의 약 2-3배 정도 높았으며, 괴롭힘 유형에서는 강제심부름 피해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경우에는 아이디 도용 피해, 인터넷 게임관련 사기 피해, 인터넷 게임관련 폭행피해에서의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특히 인터넷 게임과 관련된 피해인 사기피해와 폭행피해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에 비해 작게는 2배에서 크게는 4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의 가해자의 신분과 수는 다음과 같다. 물리적·신체적 폭력의 경우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학교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괴롭힘의 경우는 가해자의 수가 두 세 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가해자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모르는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같은 학년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넷째,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을 시 피해를 알린 여부와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신체적 폭력이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에 비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해를 알린 대상은 물리적·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었을 시 가족에게 알리는율이 상대적으로 많았

으며,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은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가장 많이 얘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폭력 피해를 입고서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학교폭력의 세부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물리적·신체적 폭력에 의해 피해를 경험했을 때에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괴롭힘과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경우에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학교폭력의 가해율은 피해율과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비해 2002년도에 증가하였다. 특히 2002년도에 와서는 사이버 폭력(및 휴대폰 폭력)의 가해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일곱째, 학교폭력의 가해율 역시 피해율과 동일하게 2002년 현재, 남학생의 가해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물리적·신체적 폭력의 경우에는 2001년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2배 정도, 2002년에는 3배 정도 가해율의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보고 되었다.

여덟째,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집단에 속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현상은 여학생 14%, 남학생 17%에서 26% 정도 발견되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하는 정도가 일년 사이에 17.2%에서 26.6%로 높은 비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가해와 피해를 다 경험하는 퍼센트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그 피해의 가해자가 중고등학교 학생과 같은 상급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보다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어지며 더 이상 학교폭력이 청소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각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1년도와 2002년도 두 해 사이에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의 피해율과 가해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펼쳐지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

히려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예방교육의 활성화와, 사회에서 폭력을 거부하는 전반적인 의식의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단적인 접근을 통해 학교폭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보다 정확한 학교폭력의 추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후에 행해지는 연구에서는 가해·피해 모두 경험 집단에 주목하여 가해 유발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인들을 찾아내어 피해자 중심의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이 함께 기울어져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시간 지연 연구

참고문헌

- 김길임·심희옥(2002). 일상적 스트레스와 또래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경험 : 학년과 성별 비교, *이동학회지*, 23권 5호, 139-157.
- 김선애(1999). 초등학생의 학교주변 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8권 3호, 437-451.
- 김준호·김선애(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권 1호, 89-110.
- 신재선·정문자(2002).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 유형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이동학회지*, 23권 5호, 123-138.
- 이병기(1999). 학교조직 풍토와 학교내 폭력과의 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1999). 학교내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명신(1998).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 윤진(1996). "2020, 청소년 병리·폭력", 사회정신건강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움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1). 어린이·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실태 및 학부모·교사의 불건전 정보 대응 실태 조사.
- 정보통신위원회(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

- 회화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대화의 광장(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6). 학교폭력,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울림.
- 최미경·도현심(2000). 또래에 의한 괴롭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 종단적 연구 : 애착 및 우정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21권 3호, 85-105.
- 치안연구소(1996). 학교주변 폭력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2000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5). 청소년의 폭력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조사.
- _____ (2001). 학교폭력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_____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 Archer, J. & Browne, K. (1989).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 Berkowitz, L.(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2003. 6. 11 접수; 2003. 8. 11 채택)